Industry p/10

삼성 직무적성검사 고사장

SSAT "대체로 평이했다"

메트로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Sports p/21

손흥민·구자철 맞대결

짓밟아라 승진하리라

정용진, 노조탄압 유죄 이마트 간부들 되레 우대

"부당노동행위 계속 하라는 메시지"… 노사갈등 고조

홍준표 무상콩밥 먹나?

SAMSUNG Galaxy S6 edge

품귀 맞아?

P-3 해군 해상초계기 무사고 20년 해군은 12일 P-3 해상초계기가 무사고 운유 20주년을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P-3 해상초계기는 1995년 1호기 도입 이후 20년간 7만여 42시간을 비행했으며, 거리로는 3200만km이다. 이 기록은 4만123km인 지구둘레를 800바퀴 비행한 거리이며 지구로부터 달까지 4번 왕복한 것이다. P-3는 수상·수중·공중을 포함하는 해군 입체전력의 한 축으로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기뢰부설, 조기경보 임무가 가능한 전천후 해상초계기이다. /연합뉴스

미 '아태지역에 신무기 배치' 재확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거듭 표명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12일 미국이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B-52(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방한 중이던 카터 장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직접 관할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태지역에 배치될 신무기 체계의 일부를 거명한 바 있다. 카터장관이 거명한 무기체계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전자·사이버전 최신 무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개발이 착수될 차세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LRS-B'는 10년 내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포를 탑재한 신형 구축함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2443대를 구입할 계획인 F-35 스텔스 전투기도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연합작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남겼다.

미국이 추가 생산하는 사드의 배치 지역을 놓고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때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사드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쓰는 중국도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젠 20(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시험 평가 중이며 무인전투기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해양전력의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둥펑 21D(DF-21D) 대함미사일(ASBM)의 사거리를 2020년까지 8000㎞로 늘릴 계획이다. 4만8000~6만4000t급 재래식 항공모함 2척, 9만3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자체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또한 2척의 2만t급 호위함과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5천t급 신형 호위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6척의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하고 16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려 동중국해 감시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내년까지 F-35 42대를 도입한다.

북한도 군비경쟁 대열에 뛰어든 형국이다. 원거리 타격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홍준표, 공짜밥 먹게 될까

성완종 "홍준표에 1억 전달" → 홍준표 '배달사고" 시사
檢, 12일 본격 수사→공소시효 장애없는 홍준표 지목할 듯

홍준표(사진) 경남지사는 어쩌다가 세인들의 타깃이 됐을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언급한 금품로비 대상은 12일까지 공개된 내용(경향신문 인터뷰 일부)을 기준으로 모두 8명이다. 이 중 홍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이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3명이고, 현직 총리까지 있다. 하지만 단연 세인들의 관심은 홍 지사에게 쏠려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홍 지사가 과연 사법처리를 당할지가 관심사다. 정확히는 홍 지사가 교도소의 '공짜밥'을 먹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홍 지사를 향해 '선별적 뇌물'로 마음이 상했을 거라며 '립내리'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이 SNS에서 돌고 있다. 홍 지사가 대권을 노리고 있지만 실제는 처량하다고 있다고 꼬집는 말이다. 성 전 회장은 홍 지사에게는 1억원을, 친박 인사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는 3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세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별급식'이라는 홍 지사의 대권 어젠다에 대한 조롱인 셈이다.

지난 11일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트위터는 비난과 증오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트위터에) 글을 쓰지 않은지 2년이 넘었다"며 "아들이 성완종 사건으로 어제 트윗에 욕설만 올라온다고 해서 없애라고 했다"고 적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이어 홍 지사는 스스로에 대한 변호에 나섰다. 홍 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지켜보면 되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나가서 언론재판으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고인(성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 하나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밝힌 대로 제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홍 지사 캠프 인사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여러 차례 언론에 "혹시 내 주변사람 중 누가 홍준표를 팔았는지는 모르겠다"며 "정치권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났을 거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캠프 인사는 언론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만 했다. '배달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성완종 관련 수사착수와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한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를 두고 검찰을 향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계정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다.

검찰에서도 공소시효라는 장애물이 없다는 이유로 홍 지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1년의 의혹은 앞으로 3년 넘는 수사 기간이 남아 있다. /류형열기자

박 대통령,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회식 참석차 대구 방문 중에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발 맞춰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총장은 수사팀에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에는 이날 오전 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김 대표의 입장 발표 이후에 나왔다. /송병형기자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 피습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현지시간)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상자는 모두 현지인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보안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차를 타고 지나가던 무장 단체가 대사관 앞에서 다수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격의 원인이나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리비아는 독재자 카다피 축출 이후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 민병대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슬람계 민병대가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한 이후 리비아 정부는 동부 도시 토브루크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나라 대사관들도 앞서 트리폴리에서 무장단체의 공격 표적이 된 바 있다.

정부는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 공관원 전원 철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이기자

"검찰 좌고우면 말라…외압 막아주겠다"

김무성 '성완종 리스트' 긴급기자회견·경향신문에 "녹취록 공개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검찰을 향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했다. 또 "외압을 막아주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2일 새누리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 서 책임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다. 위법을 덮으면 이건 또 다른 불행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바로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여당 실세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검찰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달라는 당부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 일에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와 고위당정청을 연석해 많이 하겠다 했는데 고위당정청에 영향은 없나"라는 질문에 "당분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청와대 측과 연락을 하거나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메모의 명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런 상의는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는 "혹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하튼 새누리당에서는 이 일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 앞에 의혹을 다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라며 "그러한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겠다"고 답했다.

"성완종 죽음 누군가 책임져야"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12일, 성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서산장학재단 관계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미흡한 검찰 수사를 전제로 특검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는 지금 이야기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서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규명을 통해서 하루 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같은 이유로 경향신문에 "(지금 고인이 50분간 대화한 녹취록을) 빨리 다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향신문은 50분 분량 중 약 7분가량만을 공개한 상태다.

이날 당 내에서는 특검 도입과 관련해 이견이 나왔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우리 정치와 공직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래서 특검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서 상설특검법도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미기자 reneun@metroseoul.co.kr

고개 숙인 김무성 /연합뉴스

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 사퇴' 요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당 인사들을 향해 현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성남 중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고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모두 8명의 여당 인사가 올라 있다. 이 중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현직에 있다.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고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며 "성 전 회장이 너무나 억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리스트인 만큼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전 현직 비서실장 세 사람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 권력들의 집단적인 거액 뇌물 비리가 폭로된 사상초유의 부정부패인 불법 대선자금의 일단도 드러났다"며 "재보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이 놓여 있지만 그 진실을 규명하는 건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대상자가 모두 권력자라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의 검찰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지 의문으로, 성역없는 지속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경우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에게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태를 '친박(친박근혜)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자금 실체를 우선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 위원회 이름도 '친박 게이트 대책위'다. 전병헌 대책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실체를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 [illegible]

대정부질문은 '제2의 이완구 청문회'

13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이완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7명을 비롯해 이 총리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원비리를 직시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장본인이 불과 한 달만에 사실상의 청문대에 오르게 됐다.

이 총리는 이름과 나란히 돈 액수와 날짜 등이 적혀있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이름만 적혀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내 대표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네 번째 질문자에서 첫 질문자로 순서를 바꿨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 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공세 수위를 질문 초반부터 높이기 위해서다.

또 야당은 '부패척결'이라는 선언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게 주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결국 가이드라인이 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 (성 전 회장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월 총리 인준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자녀의 병역面 회피와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언론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앓았다. 벌써부터 대정부질문은 두고 '제2의 이완구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총리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참이었다. 이 총리로서는 이번 게이트 연루 의혹이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성 전 회장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기자

신세계 신문강탈사건 유감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오만과 아집도 강해지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기에 외부 비판에 눈과 귀를 막으면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진다는 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최근 재벌관련 비판기사를 쓰면 '악의적'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게 됩니다. 재벌사 홍보 담당자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총수 얼굴 사진을 너무 크게 도드라지게 쓰고 관련 제목도 모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걸 이유로 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보 등 기사 내용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illegible]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사회는 신문이 재벌 총수의 얼굴사진을 비판기사와 함께 크게 싣는 것조차 불경스런 일로 금기시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잘못된 일을 지적하더라도 재벌가 오너들에게는 모욕적인 표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언론에서 칭송할 때를 빼면 총수 사진을 크게 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목 내용과 표현방식도 최대한 근엄하고 엄숙하게 취급해주죠.

이제 재벌사 홍보맨들은 총수나 재벌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되레 언론사들의 논조를 지배하려고 하고 비판기사가 나오면 홍보의 실패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서울 회현역 근처에서 벌어진 신세계 이마트 홍보담당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은 이런 분위기를 근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얼굴사진이 이마트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기사와 함께 큼지막하게 실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막아야 할' 일로만 여겨진 것입니다.

그 일이 신세계 조직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충동 행동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엄연한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도 신세계측은 메트로신문사에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 감히 정용진 부회장님의 용안을 비판기사와 함께 실을 수 있는가,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마인드인 가 봅니다. 전가의 보도인 '광고비 뜯으려고 악의적 기사를 썼다'는 역선전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언론을 자꾸 짓누르고 비판기사를 봉쇄하고 심지어 신문을 강탈하면 결국에는 재벌 [illegible] 않는다는 점을 재벌 홍보관계자들이 곰씹어 생각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편집국장

54년만의 '역사적 만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회동했다. 미국과 쿠바 정상이 회동한 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시대의 한 장을 넘겨야 한다"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우리는 기꺼이 오바마 대통령과 모든 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Shanty Town Turning into a Park

Unlicensed shanty town "Daltu village" in Seoul Gang-nam is changing into a "Neighborhood park." Gang-nam district stated that Daltu village, which is an unlicensed shanty town, will be the second park to be established by 2017 after the establishment of Guryong village on the 9th. Neglected and unlicensed shanty town has been sitting for the past 30 years where is now Daltu Neighborhood Park. In the 1980's, unlicensed buildings expanded rapidly as people moved into the area due to the division movement of Gae Po area. Now there are 254 residents living in 186 buildings. Though it was designated as a park on September 1983, the shanty village still exists today.

Most of these temporary buildings are made of boards or thermal covers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fire or major accidents. Also, there is sanitation problem because people use public restrooms and same water tank. Gang-nam district has finished the park's obstruction [illegible]. They will announce the opening of the business plan on the 23rd and after that will follow the discussion of moving compensation. A park will be established near Guryong station by this year. Daltu Neighborhood Park is an important park that goes between Yang Je stream and Dae Mo Mountain. Gang-nam officials stated that they will provide the independent foundation for residents by completing the park establishment successfully and also provide a clean resting area for the citizens.

/목고다이어에 [illegible]
Chris Kim(김은관) 강사

판자촌이 공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판자촌 '달터마을'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강남구는 9일 구룡마을에 이어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달터마을을 정비해 2017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달터근린공원에는 약 30년간 방치된 무허가 판자촌이 자리잡고 있다. 달터마을은 1980년대 초 시작된 개포지구 구획 정리 사업 때 일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됐다. 현재는 곳에 25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다. 1983년 9월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판자촌이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

이 마을은 대부분 판자와 보온 덮개 등으로 만든 가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 공동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사용해 보건이나 위생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강남구는 현재 공원 터의 지장물 조사를 끝냈다.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 공고 후에는 거주민과 이주·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올해 안에 구룡역 인근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달터근린공원은 양재천과 대모산을 가로지르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원조성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판자촌 거주민에게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아현역 푸르지오' 등 16개 단지 분양

분양캘린더

이달 들어 분양시장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전국 곳곳에서 유망 단지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6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1곳, 견본주택 개관 12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2구역을 재개발한 '아현역 푸르지오'의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34~109㎡, 총 940가구 규모다. 3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 도보 5분 거리다. 신촌·이대 상권 등과 가깝다. 도심·여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쉽다.

같은 날 대림산업은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0블록에서 'e편한세상 서창'을 1순위 공급한다. 84㎡ 전체 834가구로 구성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장아산근린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이 인근이고, 지구 내 유입한 상업지역과 접해 있다.

한신공영은 16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B10블록에 짓는 '한신휴플러스'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68~84㎡, 총 1358가구다.

영동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부지와 가깝다.

현대건설은 이날 경남 창원 북면 감계지구 4블록 15로트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청약을 받는다. 59~101㎡, 총 836가구 규모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창원시청, 조령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구 내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7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공급하는 '태전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59~84㎡ 640가구 규모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2016년 예정)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2017년 예정)가 인접했다. 단지 남쪽으로 중심상업지역이 계획돼 있다.

/박선옥기자 pss1082@

몸집 불리는 日금융사, 규제 사각지대

대부업체 국내 점유율 40% 넘어…·관리 강화 필요

일본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등 당국의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10위 대부업체 총자산 변동현황'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1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42.2%다.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은 10조1605억원이다.

특히 아프로와 산와, KJ1 등 일본계 '빅3'가 한국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높였다.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의 자산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들 자산의 총액은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자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서민들이 소액 급전을 빌려 쓰는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자산은 2조5249억원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자산의 24.9%를 차지했다. 아프로파이낸셜의 자회사인 미즈사랑의 점유율 2.8%까지 합치면 30%에 육박한다.

산와머니는 1조2600억원으로 대형 대부업체 자산 비중은 12.4%며, J트러스트가 소유한 KJ1의 자산은 2135억원으로 2.1%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부업체 중에서는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이 자산 7064억원으로 7%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서민들의 자금 조달원인 저축은행 업계 역시 일본금융회사가 이끌고 있다.

일본계 대주주가 소유한 SBI, OSB, 친애, OK, JT 등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19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자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SBI저축은행의 자산은 3조7729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10%에 달한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나 금융회사의 계열 운영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요 고객인 서민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일본계 사금융은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 한국 서민금융시장을 잠식하고 금융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좌지우지 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협력사와 상생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협력사 임직원과 함께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신한은행 제공

"1년 미사용 계좌,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금감원, 新안심통장 도입 검토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 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앞서 금감원은 ▲금융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금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 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전에 이체 효력에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000만~3000만원을 예시했다.

이밖에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로또복권						제64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4	16	20	40	41	3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90,297,750
2등	5개 숫자 + 보너스 숫자	58,707,097
3등	5개 숫자 일치	1,365,35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금희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윤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정간물등록번호 서울마00004 가00006

증시 훈풍… '활짝 핀' 證 '속타는' 銀

거래대금 상승·증권주 무더기 신고가 경신
'인터넷은행·규제·금리 리스크' 은행주 발목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며 국내 자본시장에 꽃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다. 단 은행주는 아직도 꽃샘추위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기대감과 안심전환대출 여파, 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28.89포인트(1.40%) 오른 2087.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1년 8월 2일(2121.27)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시가총액도 1303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 소식과 추가 통화완화정책 기대가 외국인의 투자를 부추겼다. 이날 외국인은 2874억원 순매수해 강세장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도 7일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날보다 5.06포인트(0.75%) 상승한 682.02로 마감해 2008년 1월 14일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182조5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고점을 찍은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속출했다. 10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코스피 87개, 코스닥 96개다.

특히 업종별로 증권주가 전일대비 56.51포인트(6.01%)로 가장 많이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별종목별로 봐도 한화투자증권(12.76%) 현대증권(11.29%) 유안타증권(10.00%), SK증권(8.88%) 대신증권(6.66%) 등 증권주 32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교보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장중 무더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 들어 벌써 57% 상승한 증권주 활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사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13년 0.3%, 2014년 4.1%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서 올해 6.0%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지금 유입에 따른 거래대금 증대, WM(자산관리) 부문 개선, 채권운용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추가 개선 여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은행주는 남몰래 속앓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신한지주는 4만2000원에서 4만350원으로 3.92% 하락했다. KB금융은 3만8150원에서 3만7750원으로 1.05%, 하나금융지주도 2만8650원에서 2만7700원으로 3.31% 떨어졌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부담도 은행들의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374조원 중 34조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됐다. 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 3.24%에서 3월 안심전환대출 평균금리 2.6%의 차인 0.64% 만큼의 손실을 은행이 감당해야 한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1.9% 하락한 은행주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1분기 실적이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KB금융 법인세 환급, 삼성지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특별이익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란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쟁 격화 가능성,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 금리인상 시기 지연 등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어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기관들이 은행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이 발표된 2월 이후 외국인마저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은행주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아이행복카드로 12만원 돌려받자

신한카드 캐시백 이벤트

신한카드는 아이행복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12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매월 신용카드는 1만원씩, 체크카드는 3000원씩 캐시백받을 수 있다.

조건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증 외 가맹점에서 20만원 이상 사용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 또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설정하면 된다.

이와함께 신한 아이행복카드 회원은 이달 말까지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회원 본인 외 동반 3인까지는 반값에 자유이용권을 이용가능하다.

앱카드 신규 가입을 하고 첫 결제를 한 경우엔 2000포인트를 준다.

아울러 오는 5월 말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아이행복 마스터 카드를 사용한 고객은 이용 금액의 10%, 해외 ATM에서 현금 인출 시 1%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익스피디아 해외 호텔 예약 할인과 Hertz 해외 렌터카 할인, 미국 프리미엄 아울렛 할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백아란기자 alive@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발대" 한화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10기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단은 학교폭력 근절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화생명제공

분양시장 홍수… "튀어야 산다"

건설업계, 로드 마케팅 등 차별화로 고객 확보 주력

올 들어 사상 최대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정된 수요자를 모시기 위한 독특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자료나 선물 등을 나눠주던 마케팅 기법은 이제 고전이 됐다. 최근에는 모델하우스에 앞서 홍보관을 오픈해 수요자를 선점하거나 거점지역을 돌면서 지역민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연기다.

1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내달 일신 킨텍스부지 내 '킨텍스 꿈에그린' 분양을 앞두고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안근에 사전홍보관을 만들었다. 홍보관에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루 2번씩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청약방법 등의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꿈의숲 코오롱하늘채'의 사전 홍보관 '하늘채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2층 규모로, 전면 통유리를 사용해 2층에서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현장에 홍보관을 마련해 입주 후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조망권을 미리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 21일 오픈한 이래 약 800명의 고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이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선보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은 홍보를 위해 로드마케팅을 진행한다. 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캐슬 주부 카운슬러'들이 캐너를 착용하고 일산 파주신도시의 주요 거점지역에서 가두행진을 펼쳐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3구역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신촌'도 사업장 인근의 안산 앞에서 '오렌지 카페'라는 무빙형 카페차량을 운영한다. 봄 꽃구경을 위해 안산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주 태전5·6지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태전'의 모델하우스를 현장 인근에 마련할 계획이다.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대부분의 단지들과 차별화를 꾀한 것.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역 근처에 만들면 고객들이 찾아오기는 쉽지만 현장을 다시 둘러봐야 해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모델하우스 방문만으로 입지와 주변 개발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 소개되는 아파트는 단지 구성이나 평면, 커뮤니티시설 등이 모두 상향 평준화돼 있다"며 "비슷한 상품 속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독특 튀는 마케팅 전략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육기자

금감원 Q&A

저금리대출 전환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늘어

Q. 사업 악화로 생활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ㅇㅇ은행 직원이라는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ㅇㅇ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우선 수수료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히 불법입니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꾸미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대출과 관련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대출여부를 확인(①금융회사인 경우 대표번호로 대출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 ②그 외의 경우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각종조회→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대부업등록여부 확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김민지기자

시중자금 CMA·MMF로

저금리 탓에 MMF 5년만에 110조원대 돌파, '은행 이자+α' 인기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대 금리 탓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자금이 MMF나 CMA로 유입되는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대기성 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MMF 순자산 총액은 113조6082억원으로 집계됐다. MMF 순자산 총액이 110조원 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MMF 규모는 올해 들어서만 30조원 36.6% 늘어났다.

MMF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잠시 자금을 맡겨두는 상품이다. 특히 하루만 맡겨도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연 1.5~2.4% 수준의 수익을 준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보수적인 법인과 개인 고객들도 속속 돈을 맡기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83조2920억원이던 MMF 순자산 총액은 1월 말 95조6867억원, 2월 말 100조7608억원, 3월 말 102조4597억원을 나타낸 뒤 4월 들어서는 11조3485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단기 자금 유입처인 CMA를 찾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CMA 수는 지난달말 1119만2018개로, 2012년 8월 1175만23개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1분기에만 CMA 수는 14만5396개 순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1104만6622개이던 CMA는 1월 말 1109만5227개, 2월 말 1113만9028개, 3월 말 1119만2018개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CMA 잔고도 지난해 12월말 46조3349억에서 지난달 말 47조4799억원으로 3개월 새 1조14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CMA 계좌가 급증한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생길 때까지 투자 대기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고객이 적지 않아서다.

맡긴 돈을 수시로 꺼낼 수 있으면서도 현금 체크카드 사용, 주식거래 등이 가능해 한때 '만능 통장'으로 인식되던 CMA는 2013년 동양사태 여파로 인기가 한풀 꺾였다. 최근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CMA의 인기는 떠난 고객이 다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잔고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증시로 돌아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청주지점 자산관리 세미나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6에 위치한 청주지점에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진혁 미래에셋증권 중관영업팀 과장이 강사로 나서 후강퉁 제도와 유망종목을 안내한다. 또 미래에셋증권의 HTS '카이로스'의 활용방법을 알려준다.

민혁기 미래에셋증권 청주지점장은 "후강퉁 시행 이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자산배분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노하우를 배우고 투자전략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사전 전화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증권 청주지점(043-254-0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bobae@

"연 10% 수익 추구" KDB대우증권은 최대 연 10% 수익을 추구하는 ELS 모집 총 8종을 75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KDB대우증권 제공

'e편한세상 서창' 견본주택 북적

3일간 2만5000명 몰려

대림산업이 지난 10일 문을 연 'e편한세상 서창' 견본주택에 3일간 총 2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 685번지에 있는 e편한세상 서창은 지상 21~25층 8개동, 전용면적 ▲84㎡A 649가구 ▲84㎡B 91가구 ▲84㎡C 95가구 전체 835가구 규모다.

중심상업시설과 장아산 근린공원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는 5000㎡의 대규모 중앙공원이 조성되고 대규모 어린이집과 통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돼 있으며 기존 아파트(2.3m) 대비 10cm 더 넓은 2.4m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e편한세상 서창은 4월 13~1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2일, 계약은 4월 28일~30일에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1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유현희기자 yhh1209@

보험업계 '방카 25%룰 해제' 또 도마위

지주계 "상품 다양성 제공" 비지주 "생존권 위협"

금융당국이 금융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포함하는 안을 논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25%룰 해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두지 못한 비(非)금융지주계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복합점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합점포에 보험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금융위의 행보는 지난해와 크게 상반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합점포를 지난달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非)은행계 보험사의 반발로 보험업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만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한 방카 25%룰에 있다.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복합점포가 활성화되면 금융그룹의 계열 보험사들은 25%룰과 보장성보험 판매제한 등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지주계열 보험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카 25%룰이 지주계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 지주계열에서는 방카 25%룰 해제를 생존권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 지주계열 관계자는 "복합점포 도입으로 방카 25%룰이 무의미해지면 입점한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의 판매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계열이 시장을 독점하면 기존의 보험사는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삼성전자 무선 오디오 세계 최초 국내 출시

"음악감상, 선 없이 즐긴다"

360도 전 방향 사운드 출력 TV·사운드 바 등 외부기기 하나의 앱으로 컨트롤 가능

삼성전자가 21일 무지향성 오디오인 '무선 360 오디오'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선 360 오디오는 CES 2015에서 첫 공개 후 'CES에서 출시된 가장 흥미로운 스피커 중 하나', '어디서부터 소리가 나오는지 찾기 어려운 풍성하고 방안을 가득 메우는 사운드' 등으로 평가 받았다.

이 제품은 360도 전 방향으로 사운드를 출력해 어느 위치에서나 고음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삼성 오디오 랩'의 첫 제품으로 사운드 왜곡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링 라디에이터 기술'과 새로운 기준의 음향 튜닝 기술을 적용했다.

오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멀티룸 앱'으로 사용편리성을 높였다.

멀티룸 앱은 ▲와이파이·모바일 기기와 연결 ▲TV·사운드 바 등 외부 기기를 동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앱으로 컨트롤하는 멀티룸 사운드 시스템 ▲원형의 휠을 돌려 음악을 컨트롤하는 직관적인 UI 등이 특징이다.

이 앱으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와 해외의 튠인, 아이하트라디오까지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광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겸비한 무선360 오디오는 멀티룸 앱을 통해 뛰어난 사용성까지 겸비됐다"며 "앞으로 무선360 오디오가 오디오 시장에 불러일으킬 긍정적인 결과에 나에 매우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스탠드형 'R7'과 한 번 충전으로 6시간 사용 가능한 이동형 'R6 포터블' 2종이 출시된다. 14일부터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예약판매가 시작되고 오는 21일부터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제품 출고가는 'R7'이 59만원, 'R6 포터블'이 49만원이다.

/김은경기자 sun219@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무선 360 오디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현대·기아차, 美 고급차 시장 돌풍

에쿠스·제네시스·K9 등 전년比 판매실적 106%↑ 고급차 점유율 10.4% 차지

현대기아차가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점유율은 10%를 돌파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에쿠스, 제네시스(사진), K9 등 현대·기아차 3종은 올해 1~3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3676대)에 비해 106% 증가한 7566대가 판매됐다. 이는 중대형 럭셔리 차급의 미국 시장 점유율 10.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고급차 3종의 판매 실적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전체 점유율 7.9%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제네시스가 성과의 주역이 됐다. 제네시스는 올해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2653대)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6656대의 판매실적을 나타냈다. 이런 괄목할 실적에 힘입어 차급 점유율도 3.5%에서 9.1%로 수직 상승했다. 에쿠스는 이 기간에 641대(0.9%), K9(현지명 K900)는 269대(0.4%) 팔렸다.

지난해 4월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신형 제네시스는 올 1분기에 BMW 5시리즈(1만2065대), 벤츠 E-클래스(1만1234대)에 이어 차급 내 전체 판매 모델 중 3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가 해당 차급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2008년 출시 후 처음이다.

/양소리기자 Ihsound@

LG전자, 중동시장 집중 공략

'몽블랑'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라인업 확대

LG전자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활가전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해 제품 출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월 고화질 OLED TV로 중동·아프리카 지역 시장 공략에 나선데 이어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중동 시장에 공개했다.

LG전자는 이달 중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등 중동 국가에 디자인과 성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몽블랑'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가별로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로 선보인다.

LG전자가 최근 두바이에서 주요 거래선 관계자들을 초청해 몽블랑 등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소개했다.

중동지역 공기청정기 수요는 연평균 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G전자는 건조한 사막 기후, 매연, 대기 오염 등으로 중동 지역 공기청정기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사업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현지 고객을 공략할 계획이다.

몽블랑은 사막의 모래 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 스모그 원인 물질 등을 걸러주는 강력한 필터성능이 강점이다. 국내에서는 LG전자 공기청정기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인기다.

/김보라기자 yuiz@

쌍용자 노조원 가족 초청 역사문화기행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곤장 체험을 하고 있다. /쌍용차 제공

자녀들은 역사지식 쑥, 직원들은 소속의식 쑥

쌍용차, 노조가족 초청 '역사문화기행'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족들을 초청해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기행' 행사를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 행사는 노조원 가족이 자연 속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행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조원 가족 259여명은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를 테마로 한 옛길 박물관 견학 ▲성균관 스캔들, 대류 쭉은 달...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이자 한류관광지로 떠오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방문 ▲1관문(주흘관)~2관문(조곡관)에 이르는 과거길 도보 탐방을 경험했다.

조립1팀에 근무하는 아버지와 행사에 참석한 이준영(9)군은 "문경새재는 사극촬영지로만 알았는데 직접 오니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인 것 같다"며 "특히 옛길박물관에서 200점이 넘는 아리랑 관련 유물을 본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노사관계 증진 도모와 조합원 가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사문화기행 외에도 공장초청행사, 임직원 자녀 대상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역사공부도 하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s@

LG전자 'G4' 가죽 커버·착탈형 배터리 채택

해외사이트서 스펙 유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사진)의 성능이 유출됐다.

12일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인 G4의 스펙의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내용은 LG전자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12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G4에는 5.5인치 IPS 퀀텀 디스플레이와 2560X1440의 해상도가 채택됐다.

3000mAh 용량의 착탈형 배터리와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는 SD카드 슬롯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0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S6엣지에 일체형 배터리가 적용된 것과 대비된다.

G4의 크기는 75.3X8.9X149.1mm로 전작 G3가 75.6X8.95X146.3mm였던 것에 비해 폭과 두께는 줄고 높이는 커졌다.

후면 커버는 가죽과 메탈로 보이는 재질 2종이 올라왔다. 가죽 커버는 검정, 갈색, 버건디, 하늘색, 아이보리, 노란색 등의 색상이 공개됐다.

또한 흰색, 실버, 핑크 등 색상의 픽셔를 케이스를 씌운 모습도 공개됐다.

/이은정기자

‘삼성고시’ SSAT “대체로 평이·추리 어려워”

핀테크·중국사 문제 눈길 갤럭시S6 엣지 관련 미출제

삼성그룹의 대졸(3급) 신입사원 공채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가 12일 전국과 해외에서 실시됐다.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게 응시생들의 반응이다.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와 아편 전쟁 등 중국사를 묻는 상식 문제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S6·엣지 등 제품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SAT는 이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역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3개 지역에서 치러졌다.

삼성 측은 응시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0만 명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9만 명 수준으로 점쳤으나 정확한 응시생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SSAT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17개 계열사에서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다. 삼성은 올 상반기에도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규모인 4000~45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고사장 수도 공개되지 않았다. 작년 하반기에는 국내 79곳과 해외 3곳 등 82곳이었다. 응시자 규모가 약간 줄었으니 고사장 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대부고에서 열린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 응시자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험은 언어·수리·추리·상식 등 기존 영역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 추가된 시각적 사고(공간지각능력) 등 5가지 평가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0문항으로 2시간20분간 치러졌다.

이날 본부 고사장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부분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작년 갤럭시 노트엣지 등 삼성제품의 문항이 출제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갤럭시S6에 대한 문항은 없었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지원한 한 응시생은 "핀테크의 의미에 대해 묻는 상식 문제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응시생들은 역사 문제가 상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분서갱유 시기, 아편전쟁 등 중국사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었다고 한다.

흥선대원군의 업적, 목민심서, 고려 왕건 등 한국사도 다뤄졌다. 측우기 등 과학 발명품을 나열해놓고 발명가를 맞추는 문제,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 등도 있었다. 다만 시각적 추리 영역 문제는 어려웠다고 응시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DS(부품)부문 지원자는 "여러가지 도형을 보기로 놓고 조각을 찾는 시각 추리 문제를 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해야만 SSAT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채용제도를 적용한다.

/송태종기자 ssh@metroseoul.co.kr

한·중·일 FTA 오늘부터 7차 실무협상

이번 협상결과 토대로 내달 서울서 수석협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실무협상이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측은 왕서오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측은 타츠오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2일 산업부는 밝혔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선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달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 약 20여 개 작업반 회의를 열고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경 서울에서 제7차 수석대표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송태종기자

11일 필리핀 세부 단반타얀 지역에서 대한항공 세부 지점 직원과 봉사자 직원이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태풍이 빼앗아간 보금자리 대한항공이 지어드릴게요”

필리핀서 '집 짓기' 봉사

대한항공은 필리핀 세부에서 거주 시설이 부족한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집 짓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봉사활동을 펼친 필리핀 단반타얀 지역은 작년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와 동행을 해나가는 대한항공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케손 지역을 시작으로 3년째 활동 해비타트 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 행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현지 비영리기관 '해비타트 포 휴매너티 필리핀'과 함께 이뤄졌다.

이날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재 나르기, 목조 작업, 시멘트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숙련된 건축 노동자들 공사 현장에 배치해 집 짓기와 수리에 필요한 기술을 주민들에게 교육해 의미를 더했다.

대한항공은 200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에 선착비, 항공권 등 후원을 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해비타트 집 짓기 현장에 직접 참여해 올해까지 13채의 집을 지었다.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사의 특성을 살려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소리기자 sound@

SKT-제일병원, 女질환 진단기술 개발 맞손

ICT기술·임상분야 융합 연구

SK텔레콤과 제일병원이 차세대 ICT기술과 임상분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여성질환 진단기술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제일병원은 제일병원 의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여성 특화 진단기술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진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단기술 개발에 활용할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기술(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은 최근 임상연구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주로 유전체 수준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 진단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SK텔레콤과 제일병원이 차세대 ICT기술과 임상분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여성질환 진단기술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 제공

MOU체결을 통해 여성암, 태아 산전진단 등의 분야에서 질병의 발생 위험도와 질병의 유무,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일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성 질환 치료와 연구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생명정보학 기술 등 ICT기반의 진단 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hm0101@

참여연대 "LGU+, 개인정보 사문서위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직원이 사인 위조

LG유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도용하고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고발당해 조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진보사회나눔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지난달 31일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 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가입자에게 걸쳐 약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필수서명란과 선택사항인 제3자 정보제공 동의부분 등에 각 가입자들의 필체와 다른 서명으로 추정되는 사인이 기재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가입 또는 단말기 변경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위조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따른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는 가입시 선택사항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란'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참여연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전 가입자에게 걸쳐 약 30여명의 단말기 변경계약서,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제공

전 등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설문조사 재화서비스 홍보와 권유등의 위지기반 정보제공과 광고전송 서비스 등의 광고전송 동의 등 광범위하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선택사항에서 가입신청서 개인서명이 거짓서명인 것이 상당수 확연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대상, 이용목적, 정보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 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려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9가지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가입자들이 LG유플러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잘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을 임의 기재했다면 선택적 동의 부분에 한해서 목적 범위 외에 수집·이용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례는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 위조 사례로 마지막 사인을 보면 누가봐도 표시가 날만큼 다른 글자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전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세르파 될 것"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 투자자와 네트워크 우수 스타트업 정보 공유

"경기센터가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해외 벤처캐피털을 연계해주는 세르파 역할을 하겠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덕래, 이하 경기센터)가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달 30일 KT와 경기도가 개소한 경기센터는 IT에 문화와 금융, 건강 등을 융합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T와 경기도 외에도 해외 스타트업 육성기관, 글로벌 IT기업, 국내 창업센터 등이 힘을 보탠다.

경기도 삼평동 판교공공지원센터에 마련된 경기센터는 총 1620㎡의 규모로 구성됐다. 핀테크지원센터과 게임 소프트웨어 랩, 모바일과 사물인터넷(IoT) 실험 공간 등을 마련했다.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경기센터가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해외 벤처캐피털을 연계해주는 세르파 역할을 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KT제공

◆ IT융합 벤처의 글로벌 진출 허브 역할

경기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에서 발굴된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연합체(G Alliance)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연계해 전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전시회와 데모데이(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투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유망 벤처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혁신센터와 공공기관(한국투자공사, 코트라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인프라를 하나로 연계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사명제 전국 기관 회의체 운영과 우수 스타트업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통해 선별된 스타트업을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지원 기관에 배정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벤처와 중소기업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세계 가전전시회(CES) 등 해외 유명 산업 전시회에 참여시켜 해외 마케팅과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한 현지 데모데이를 열고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투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hm0108@

갤럭시S6 고객 절반, 6만원대로 개통

LGU+, 요금제 분석 32GB 모델 80% 차지

갤럭시S6를 구매한 LG유플러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금제 가격은 6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출시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가입한 고객들의 요금제를 분석해본 결과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이 전체 가입 고객 중 80% 이상을 차지했다. 예약가입 개통 및 현장가입을 시작한 10일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32기가 모델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32GB 모델로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64GB 모델이 약 7만원 이상

높은 출고가로 책정이 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사전에 고객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타 통신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가 실 가입고객이 많지 않은 10만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에 높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이 많이 찾는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높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157가지 차량 고장 스마트폰으로 확인

STK '스마트 오토스캔' 출시

일반운전자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쉬워졌다.

SK플래닛은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카 솔루션인 '스마트 오토스캔'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오토스캔은 자동차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카 솔루션이다. 전용 스캐너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구성돼 있고, 스캐너를 OBD2(OBD:On Board Diagnostics) 포트에 장착하고 앱을 켜면 스마트폰으로 차를 관리할 수 있다.

오토스캔 진단, 스캔 드라이브, 에코모드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차량의 고장 증상과 위치를 실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오토스캔 진단은 157가지 차량 고장 코드와 51가지 주행기록 정보 등 정비소에 가야만 알 수 있던 차량 상태를 일반 운전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LGU+, 세계 첫 'VoLTE' 로밍 상용화

LG유플러스가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롱텀에볼루션(LTE)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전세계 이동 통신사 중 세계 최초로 LTE기반 음성 통화 'VoLTE 로밍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GSM Association)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본 이동통신사 KDDI와 LG전자의 G플렉스2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밍 중 VoLTE 서비스를 일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VoLTE 로밍은 국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도 LTE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와 음성을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다. 12일부터 일반 가입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화 연결시간이 기존보다 20배 빨라진 0.25초~2.5초가 소요된다. 통화 음질의 경우 폭넓은 가청 대역인 50~7000Hz와 고음질 음성 코덱을 이용해 HD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이마트 '노동법 유죄판결' 간부들 승진

불법 사찰 핵심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고문으로
윤명규 전 상무, 위드미에프에스 대표이사로 승진

지난해 5월 30일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부회장 정용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상무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 기업문화팀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기업문화팀 과장과 백모 기업문화팀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법원은 또 올 1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확정했다. 당시 이마트 측의 비인간적인 탄압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사측의 보호 아래 여전히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취업규칙 제35조 징계해고의 사유에 '어하한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사유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세계는 '예외'라는 말로 노조탄압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일부는 오히려 승진 됐다.

2013년 12월 20일 하언된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전문기관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노조탄압을 본격화 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NJ(노조) 설립시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 본부·실제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미행조, 면담문서작성조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자를 색출했다. 당시 이마트 임직원들의 노조탄압 대응지침의 내용을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전수찬씨에게 "너 사원들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 학생회장 나간다는 내 말은 아니냐?" 등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전씨에게 말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달 3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마트 측과의 간담회에서 최 전 대표 와 노조탄압 관련 임직원은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해고를 거부했다. 노조탄압을 '업무'로 인정한 것이다.

최병렬 이마트 상근 고문(왼쪽), 윤명규 위드미에프에스 대표

최 전 대표는 현재 이마트 상근고문으로 여전히 이마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윤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이마트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를 운영하는 위드미에프에스의 대표이사로 승진됐다. 임 팀장은 서울 이마트 한 점포의 점장을 하고 있다. 백 과장은 1심 판결 전 부장으로 승진돼 현재 부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과장 역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는 (신세계그룹이) 관리자들에게 노조를 탄압해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것"이라며 "도대체 신세계그룹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왜 죄가 아닌지 모르겠다. 정용진 오너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마트의 노조탄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신세계그룹 정 부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 강의'에서 그가 매번 강조했던 "직원은 제2의 고객"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12일 본지의 입장표명 요구에 "추후 관계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휴플러스가 12일 전국 140개 점포에서 우동라면 '여우랑면'을 출시하고 2450원(120g·5인)에 판매한다. 여우(如友)랑면은 친구같이 친근한 라면이란 뜻의 빨간 국물의 우동라면이다.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제공

현대산업·호텔신라, 시내면세점 진출

용산 아이파크몰 사업지로

오는 7월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허용 하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사활을 건 쟁탈전에 들어갔다.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를 마치고 시내면세점 사업 공동진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HDC신라면세점(가)'을 신규 설립하고 용산 아이파크몰을 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할 계획이다.

아이파크몰 내 4개 층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지을 예정이다. 아이파크몰의 입지적 강점과 신라면세점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용산아이파크몰 전경/현대산업개발 제공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면세점은 설립해 동남아 일본 등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이파크몰은 연면적 28만㎡의 대규모 공간에 백화점과 영화관, 마트, 대형 식당가를 비롯해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복합 시설을 지니고 있다. 추가로 대형 버스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면세점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enfun@

신격호·신동빈 집무실, 롯데월드타워로 이전

114층에 들어설 전망
정책본부 집무실도 이전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집무실을 내년 말 롯데월드타워로 옮기기로 했다.

그룹 컨트롤 타워인 롯데정책본부 사무실(직원 200여명)도 함께 롯데월드타워로 이전된다.

롯데그룹은 12일 내년 말 완공되는 월드타워에 두 회장의 집무실과 정책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월드타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롯데는 전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 건축사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총괄회장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의 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될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개인사무실 구역인 108~114층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은 프라임 오피스 공간인 14~38층으로 옮길 전망이다. 프라임 오피스 구역의 1개층 전용 면적은 3300㎡(1000여평)에 달한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왼쪽), 신동빈 회장

그룹 관계자는 "두 회장의 집무실과 정책본부가 이전하면 이미 잠실에 있는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그룹의 '강남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월드타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안전점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매주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 및 안전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확산되고 롯데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았다.

작년 말 콘서트홀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 사건으로 서울시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생겨 임시허가 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월 초에는 송파대로 롯데월드타워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터 앞 교차로 등 3곳에서 도로 침하와 균열현상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잠실 일대에선 롯데월드타워로 인해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잇단 도로 함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 교량상판 붕괴 사고의 시공사가 롯데건설이었던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황이 이렇자 신 회장이 직접 롯데월드타워의 안전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안전 논란을 불식하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께 123층 555m에 이르는 외관 공사가 끝나고 1년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내년 말 완공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100층을 넘어섰다. 2010년 11월 착공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정은미기자 21cenfun@

페르노리카 총파업 위기

서울 지노위 18일 조정신청 결과 따라 쟁의 돌입

한 때 매출 6000억원, '임페리얼' 위스키로 업계 1위를 차지하며 위스키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던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 마누엘 스프리에-사진)가 총파업 위기에 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쟁의에 들어갈지 결정한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97.1%의 참석 조합원 중 95.4%가 쟁의활동에 찬성했다. 현재 노조 가입 조합원은 총 174명.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는 등 직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임금 인상 폭을 13.7%, 10%, 8% 등으로 줄여왔지만 사측은 0.5% 인상안만 제시하고 있어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는 협상이 12차까지 진행될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측은 위스키 시장 침체와 매출 급감을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3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75억원, 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 73.61% 감소했다.

출고량 역시 줄었다.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총 178만7357상자(500㎖*18병)로 전년대비 3.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50만1130상자로 전년대비 13.5% 급감했다. 갈수록 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2위 자리도 언제 내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본사 임원들은 승진과 함께 책임 전자를 벌이고 심지어 임원들이 타던 차도 한 단계 좋은 차로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스키 업계의 경우 주류 도매상 사장들과 만나 스킨십을 가지고 친분을 쌓아야 하는데 장 마누엘 사장은 오히려 주류업계 사장이 왜 술을 잘 마셔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매상과 잘 만나려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페르노리카가 주류도매상과 만나서 했던 다양한 영업들을 모두 시스템화 하고, 전임 사장이 직원들과 했던 등산 모임 등도 없애면서 영업직원들의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김승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트레일워킹화로 봄 나들이 떠나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백범광장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 모델들이 트레일워킹화 'FX 제로-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아용품시장 "불황? 몰라요"

롯데마트, 전년비 7.5%↑

내수 침체로 대형마트가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아 관련 상품만이 나홀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로 외자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만큼은 지출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롯데마트가 올해 1분기(1~3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 가량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신선·가공식품이 3.2%, 생활용품이 2.5%, 의류잡화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유아' 관련 상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7.5% 신장했다. 세부 상품별로는 유기농 유아 간식이 25.6%, 유아용 위생용품이 30.2%, 유아용 식기가 12.6% 증가했다.

또 일반 서적이 11.1% 감소한 반면 유아 교육 서적은 24.5% 신장했고, 일반 과채 음료 매출이 14.2% 줄어든 반면 어린이 과채 음료는 12.1% 늘었다.

롯데마트 남창희 마케팅본부장은 "유아 고객이 불황 속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트렌드에 따라 앞으로 관련 매장 및 카테고리 운영 품목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llegible]

동아원, 포도플라자 150억에 매각

동아원그룹(회장 이희상)은 관계사인 탑클라우드코퍼레이션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포도플라자를 150억원에 매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포도플라자는 도산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의 건물로, 포도나무를 형상화한 외형의 외인복합문화 공간이다. 회사는 매각 대금을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동아원그룹은 페라리와 마세라티 수입사인 FMK의 논현동 빌딩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 탱크터미널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도 시행 중이다.

동아원그룹 관계자는 "주력사업인 제분과 사료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 그룹 비핵심 분야의 자산 매각을 마무리해 유동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llegible]

'中 훨훨' 아모레퍼시픽, 日서 '고전'

작년 日법인 당기손실 44억
백화점 4곳 매장 모두 철수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이 일본에서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일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일본 법인은 44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매출은 457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보다 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백화점 4곳에서 운영하던 최고가 브랜드 아모레퍼시픽(AP)의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 이는 고가 화장품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2년부터 럭셔리 브랜드 대신 중고가 아이오페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등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은 분위기다.

일본 법인의 당기 손실액은 2012년 36억원, 2013년 41억원, 2014년 4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중국 시장은 매년 30~4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법인 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전년보다 44% 성장한 46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일본 시장 고전을 두고 반한 기류와 엔저 등으로 일본 내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가 침체됐고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한류가 거의 끝났다"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상황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는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하는 등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일본 시장 변화에 맞춰 럭셔리 보다는 중저가 브랜드숍, 홈쇼핑 등의 채널을 이용해 적자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아모레퍼시픽 일본 매출·당기순손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범례: 매출 / 당기순손실
세로축: 0, 50, 100, 300, 350, 400, 450, 500
가로축: 2010, 2011, 2012, 2013, 2014

KT&G 복지재단, 북한산 생태복원 봉사활동

KT&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2015년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KT&G 상상발런티어'를 포함한 대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정릉지구에서 공원관계자와 함께 진행됐다.

식물 훼손의 주요 원인인 샛길 등산로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시설을 설치했으며 무단 경작지와 샛길로 인한 훼손지역에는 북한산 자생종 나무 약 800그루를 심는 등 산림조성 활동도 펼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걷기대회'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5000명 뚜벅뚜벅

비만체험·금연상담 등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용)는 지난 11일 오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원 산책로를 일주하는 걷기대회(3㎞·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행사로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남녀노소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오상진의 사회로 가수 권성희(공단 홍보대사)와 비보이 Mb크루 등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또 인기 개그맨 이승윤·김수영이 시민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비만의 위험성·걷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 외에도 비만체험·스트레스 측정상담·금연상담 등 다양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보장강화서비스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 모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 TV·김치냉장고,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됐다.

걷기대회 행사에 앞서 유엔재단 어린이회관에서는 50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적 나눔 실천을 위한 제2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가족봉사단 발대식도 열렸다.

/이래진 기자

"드신만큼 덤으로 드려요"

강강술래, 17일까지 포장 이벤트

소고기 주문땐 한우불고기 돼지고기엔 양념상품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봄을 맞이 가족 외식이나 회식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먹은 양만큼 무료 포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계점과 사울점, 홍대점은 이달 17일까지 소고기 구이류를 시키면 한우불고기 포장상품을, 돼지고기 구이류를 시키면 돼지양념 포장상품을 결제 시 주문한 양만큼 무료 증정한다(점심류·패키지 제외).

쇼핑몰(sullae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서는 이달 15일까지 봄나들이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는 33% 할인된 3만6000원, 한우사골곰탕(500㎖·3팩·6인분)과 육개장(500㎖·3팩·6인분), 갈비탕(500㎖·3팩·6인분)으로 구성된 '삼둥이세트'는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숲과 스파를 통해 차별화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리솜포레스트 레브나인힐링스파 이용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마술 같은 샌드애니메이션과 아찔드로잉, 열정적인 아크로바틱 댄스 서커스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도 준다.

아울러 하루에 한동작 뱃살과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 등 걸컷 추천도서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이화의료원, 노사파트너십 지원업체 선정

병원산업 감정노동 실태 파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지난 9일 2015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김장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제공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9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과 '201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일터 혁신 등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기업 노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노사 실무 테스크 포스팀(TFT)을 구성해 자체 개발한 감정노동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건강관리 매뉴얼 작성, 원격연계 종사자의 건강 증진 활동 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업계 모든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산업의 감정노동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효과적·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0215@

박준뷰티랩, 신도림테크노마트점 오픈

2명 방문시 1명 무료

박준뷰티랩이 이달 신도림테크노마트점을 오픈했다.

오픈 매장은 전철역과 연결되어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주거지역 중심으로 주변의 고객층이 다양하다.

신도림테크노마트점의 실내 인테리어는 블랙패턴의 깔끔한 조명프레임과 대리석으로 꾸며졌으며 직원들의 의상 역시 블랙으로 맞춰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매장 오픈을 기념해 두 사람 동반시 한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두 사람이 다른 시술을 받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두 시술 중 가격이 더 적게 나가는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

/김수정기자

JAL '한일선 스페셜 마일' 4~6월 탑승 마일 2~3배 신라면세점 상품권 증정

일본항공(JAL)은 김포~하네다 노선 B787 신규 도입을 기념해 마일리지 뱅크(JMB) 회원을 대상으로 '한일선 스페셜 마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JMB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참가를 등록하고, 4~6월 중 대상운임으로 한일 노선에 탑승하면 이용 운임에 따라 통상 2~3배의 마일을 적립해 준다.

트리플마일 대상 비즈니스 클래스 운임으로 한일 간을 왕복 탑승하면 5683 마일이 적립된다.

5만원 상당의 신라면세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더블마일 대상 운임인 경우는 3032 마일이 적립된다.

2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L 홈페이지(http://www.kr.jal.com/krl/ko/121campaign/cmp_nrt_initial15/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일기자

17.4km/ℓ 연비 매력·변속감은 다소 아쉬워

시승기

푸조 2008

디자인이나 연비, 가격, 성능을 복합적으로 겸비한 프랑스 감성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푸조 2008은 출시하면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소개되자마자 1주일 만에 1000대가 팔려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00만원대 합리적 가격 '크롬장식' 고급스러움 더해 수입차 약점 '중립주차' 가능

기존 푸조 차량들이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한다면 이 차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롬장식을 대거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독일차 디자인과 프랑스 디자인이 적절히 버무려진 느낌이다. 특히 푸조만의 특징인 측면 유리가 시원하고 넓다. 상위 트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해 개방감이 탁월하다.

실내는 깔끔하다. 버튼이 많지 않아 각종 기능을 쓰긴 쉽지만 센터페시아 스크린의 직관성은 부족하다. 인조가죽과 직물을 섞어 만든 시트는 실용적이지만 수동이라는 점이 좀 아쉽다.

계기판과 파노라마 선루프 주위를 감싸면서 은은한 파란 불빛을 내는 엠비언트 라이트는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MCP(Mechanically Compact Piloted)라 불리는 푸조 고유의 변속기는 운전자에 따라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 수동을 기반으로 전자제어방식을 섞어 만든 시스템인데 수동 때 기어를 제때 변속하지 못하면 소음이 나면서 RPM이 올라간다. 가속페달을 밟고 속력을 내이 잘 때는 변속감이 거슬린다. 변속 시 발생하는 충격이 순간 느껴지면서 탑승자에 그대로 전달된다. 다만 수동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연비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동 때보다 오히려 변속감이 훨씬 부드럽다. 기어를 제때에 바꿔주면 순간질주도 무리가 없다.

출력이 높지 않은 만큼 일정 속도 이후 치고 나가는 힘은 다소 약하다. 물론 동급의 차량과 비교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기에 토크 설정구간을 제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핸들은 동급차종보다 작아서 그런지 경주용 차량처럼 제빨리 회전할 수 있는 편이다.

한국의 주차장 사정과 흡사한 장점이 또 있다. 푸조 2008은 중립에 놓고도 시동이 꺼진다. 중립주차가 가능하다.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할 때는 수입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중주차까지 고려해야한다면 구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연비 또한 매력적인데 복합 연비는 17.4km/ℓ(도심에서 16.2km/ℓ, 고속도로에서 19.2km/ℓ)이다. 4일간 시내주행 위주로 몰아본 후 트립에 찍힌 연비는 18.4km/ℓ를 기록해 만족스러웠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우리집 차, 봄나들이 갈 준비됐나요?

냄새나는 차량 에어컨 관리, 무상점검 이렇게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넘은 지난 주말 가족들과 드라이브에 나선 김형민씨는 차량 에어컨의 매캐한 냄새에 당황했다. 겨우내 에어컨에 쌓인 먼지가 쏟아져 김씨는 결국 창문을 열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추운 겨울을 난 차량도 봄나들이 준비가 필요하다.

오랜만에 에어컨을 켤 땐 창문을 열고 5분가량 세게 틀면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에어컨 전용 세척제도 효과가 좋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밀 공기 흡입구와 냉기 배출구를 에어컨 전용 세척제로 청소했을 때 곰팡이는 최대 61%까지 감소한다.

일교차가 심한 초봄에는 타이어의 수축과 팽창이 잦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주행할 경우 연비 손실은 물론 심할 경우 타이어 파손 사고의 원인이 된다.

차의 심장인 엔진룸도 확인해야 한다. 엔진오일의 경우 불결 기온차로 수분 등 이물질이 생기며 점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는 엔진오일의 점도와 색을 확인하고 오염된 경우 교환해야 한다. 냉각수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봄철 무료로 차를 점검할 기회도 있다.

한국닛산은 4월 한 달 동안 전국 14곳의 공식 서비스센터 및 지정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닛산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엔진 에어클리너, 실내 공기정화 필터, 시트 필터, 연료 필터, 오일 필터 및 12V 배터리에 대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피니티도 이달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전국 12곳의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엔진오일,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등 총 16가지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올시 초미세주의보가 지나간 후 7일 이내에 세차비는 20%, 에어컨 항균 필터 교체비 10%를 할인받는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약 350개소로 업체명,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소리기자 Ikmum@

무인차 시대 성큼…구글카 vs 애플카 기술대전

LG경제연구원 "애플만의 무인차 제작 가능성 높아"

애플이 타이탄(Titan)이라는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글과는 달리 스마트폰 시장에서처럼 애플은 차량을 직접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12일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역량이 탁월하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애플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현실화되면 해당 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할 전망이다.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 자율주행차 운영체제(OS)와 관련된 특허 45건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의 조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이 개발되면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이 된다.

운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작은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출퇴근 이동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요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긴급한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동차의 특성이 변할 경우 자동차의 주행능력이나 연비 보다는 실내 환경, 정보통신기술(IT) 연결성 등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에 애플의 IT 강점을 살릴 수 있다.

시리와의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은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전망이다.

애플카 콘셉트 디자인.
/출처=http://www.cultofmac.com

애플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구글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2007년부터 토요타프리우스 같은 기존 차량을 무인차로 개조해 시험하고 있는 구글은 자동차 자체보다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이미 70만 마일 이상의 시험주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구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공급해 확산시키려고 하지만 직접 자동차 제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애플은 직접 자신만의 자동차를 개발할 공산이 크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러 제조사들 통해 안드로이드 OS를 확산시킨 구글과 iOS를 독점 탑재한 아이폰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애플의 사례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글카, 애플카를 똑같은 미래형 자동차로 생각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애플이 어떻게 애플카를 만들지도 중요한 이슈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에 대한 오랜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웃소싱이 힘들다면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애플카를 개발·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외부에 맡기지 않고 애플이 직접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인수를 통해 빠르게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성낙환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플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플은 혁신기업이면서 패스트 팔로워 기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글로벌 3대 자동차 업체인 GM, 토요타, 폭스바겐이 보유한 현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 기업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계가 아직 출시도 모호한 애플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

metro entertainment

"외모 신경 안써… 클렌징 세안 이제 시작"

첫 드라마 주연 –

곽시양

배우 곽시양(28)은 2014년 영화 '야간비행'으로 데뷔한 후 1년 만에 엠넷 '칠전팔기 구해라'로 몸통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변듯한 이목구비와 중저음 목소리, 자분히 고 묵직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외모 관리에 관심 있을 법하지만 그는 "폼클렌징으로 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운동하러 밖에 나가는 걸 제외하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옷도 운동복을 즐겨 입죠. 취미는 더 취미가 없는 거 같아요. 최근 들어서야 폼클렌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비누로 세수를 했죠. 저를 자분하게 보시기도 하는데 실제 성격은 장난기가 많아요. 누나 세 명이 있는데 맞으면서 자랐쇼. 까불거렸고 맞을 짓을 한 거 같아요. (웃음) 또 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죠. 연예인 야구팀인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6년 동안 야구를 하고 있어요. '칠전팔기 구해라'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운동을 하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그는 군대까지 다녀온 준비된 스타다.

"토목을 전공한 공대생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자퇴했죠.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계신기를 두드리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가수인지 배우인지 정확한 목표를 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데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24세에 군대를 갔고 제대할 때쯤 드라마를 보다가 '나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싶다'는 걸 느꼈어요."

1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칠전팔기 구해라'에 출연했다. 다섯 번 오디션을 보면서 오기가 생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작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품에서 분한 강세종은 구해라(민효린)의 곁에서 혼자 가슴 앓이를 하는 인물이다. 곽시양은 강세종의 사랑 법에 대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실제론 감정에 솔직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고백을 쉽게 하진 않고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면 말합니다. 성공률은 55% 정도요? (웃음) 고백한 횟수 자체가 적었죠. 차인 적도 많았고요. 이별할 때는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떠올리면 해야 할 것도 같지만요.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겠죠?"

주연 작을 무사히 마쳤지만 늦깎이 데뷔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조급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며 "토끼와 거북이 중 거북이처럼 한 발한발 밟아가면 굳직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후 행보를 각오했다.

"지상파 주연을 하면 좋죠. 하지만 지금 제 위치는 감독들에게 어필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야 하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려고요. (웃음) 욕심이 나요. 올해 영화 드라마 상관 없이 네 개 작품을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칠전팔기 구해라'의 강세종처럼 힘든 사람 말고 로맨틱 코미디나 액션 느와르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연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죠. 작품을 하면서 변화하는 느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그런데 계우 '곽시양'으로 불리기엔 아직 어색해요. 부끄럽지 않으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사진/리웨이엔터테인먼트 디자인/최송이

star bag

가구 브랜드 '하이브로우' 런칭

배우 겸 경력 14년 차 베테랑 목수 이천희가 최근 건축설계를 전공한 동생과 함께 가구 브랜드 '하이브로우'를 런칭했다. 그는 지난 3월 첫 에세이집 '가구 만드는 남자'를 출간해 핸드메이드 라이프를 즐기는 솔직 담백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제시'로 완벽 변신

개그우먼 정도연이 12일 tvN에서 방송된 '코미디빅리그'에서 '언프리티 랩스타'의 제시를 완벽하게 복제했다. 헤어스타일은 물론 랩 실력까지 완벽하게 따라하며 '썸&쌈' 코너에 등장해 외국으로 유상무와 함께 폭풍 디스랩을 선보였다.

데뷔 후 첫 리메이크 앨범 발표

가수 거미가 오는 17일 데뷔 후 첫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한다. 새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될 예정인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엔 그녀의 친구인 가수 영지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녹음을 마쳤다는 후문이다.

'책행시' 릴레이 우정출연

방송인 문지애가 진행하는 EBS 라디오 '책으로 행복한 12시, 문지애입니다'에 프레인 TPC 소속 연예인들이 릴레이로 출연한다. 임의준 감독을 시작으로 14일 배우 이세영, 16일 배우 류현경까지 연이어 동료이자 한 회사 식구의 끈끈한 의리를 과시한다.

"스크린 수로 흥행? 콘텐츠 더 중요"

CGV 미디어산업 포럼, 영화 편성과정 공개

"연간 개봉작 1000편 넘어… 다양성 중심 편성 힘들어"

극장 내 다양성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연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이 그렇다. 집 앞에서도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극장과 스크린 수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다양한 영화를 만날 기회는 요원하다. 이쯤 되면 극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영작을 선정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길 정도다.

국내 멀티플렉스 체인 중 시장 1위인 CJ CGV는 지난 9일 서울 CGV 여의도에서 열린 'CGV 미디어산업 포럼' 두 번째 행사를 통해 영화 편성 과정을 공개했다. 개봉작과 기존상영작별로 예측한 관객 수요, 그리고 극장별 특성을 반영해 스크린을 편성하는 '관객 수요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다.

개봉작의 경우 먼저 유사한 전작들과 스토리·감독·캐스팅 등 영화 자체의 흥행 요소, 시즌별 관객 수요와 경쟁작 상황, 이해율과 관객조사, 시사회 후 반응 등을 바탕으로 예상 관객 수를 산출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배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상영관 수를 확정한다. 기존 상영작의 경우 개봉 실적과 관객조사, 경쟁작 대비 실적과 관객 평가 등을 바탕으로 관객 수요를 예측해 상영관 수를 조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1월 개봉한 '테이큰3'의 경우 시리즈 전작인 '테이큰', '테이큰2'와 주연 배우 리암 니슨이 출연한 '논스톱'을 유사 작품으로 선정해 1차적으로 244만 관객을 예상했다. 이후 시사회 평가와 업계 반응 등을 반영해 200만 관객을 최종 예상해 스크린 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이큰3'는 최종 관객 209만명을 기록했다.

논란이 됐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유사 작품으로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를 선정해 예상 관객을 추정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경호 프로그램 팀장은 이들 유사 작품에 대해 "아이들이 주인공인 가족영화라는 점과 주제 면에서 착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거에 업계 반응 등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30만 관객을 예상했다는 것이 강 팀장의 설명이었다.

강 팀장은 많은 스크린 수에도 흥행에 실패한 '미스터 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등의 사례를 들어 "입소문이 빠른 시대에 관객을 움직이는 것은 스크린 수가 아닌 콘텐츠"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간 개봉하는 작품 편수가 1000편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편성을 한다면 하루 3편씩 상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공정한 배분을 한다고 해서 영화시장이 제대로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양성 위주로만 상영작을 편성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만 관객이 든 영화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GV가 같은 계열사인 CJ E&M의 영화를 유독 많이 상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CJ E&M 영화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른 배급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걸그룹 EXID가 12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길에서 신곡 '아 예(AH YEAH)'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예당 엔터테인먼트

EXID "경쟁 상대는 전 히트곡 '위 아래'"

명동서 깜짝 쇼케이스… 2년 만에 미니 2집 '아 예'로 컴백

역주행의 아이콘 걸그룹 EXID(멤버 LE·정화·하니·솔지·혜린)가 정주행을 시작한다.

EXID는 12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한빛판 유네스코길에서 새 앨범 미니 2집 '아 예(AH YEAH)' 쇼케이스를 열고 시민들과 먼저 인사했다.

수백명의 인파가 EXID의 신곡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EXID는 지난해 지드 역주행으로 돌풍을 일으킨 '위 아래'와 신곡 '아 예'를 선보였다.

타이틀곡 '아 예'는 펑키한 리듬과 시원한 후렴구, 재치 넘치는 가사가 인상적인 힙합 댄스곡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남자에게 반응하는 여자의 마음을 노래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신곡 무대를 마친 EXID는 근처 카페로 장소를 옮겨 컴백 각오를 밝혔다.

신사동호랭이 범이낭이와 함께 '아 예' 작업에 참여한 LE는 "'위아래'에 이어 신사동호랭이, 범이낭이 오빠들과 작업했다"며 "우리 노래에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빠질 수 없다. '아 예'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지루한 질문이나 진부한 상황에서 답하는 '아~예'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혜린은 "처음 들었을 때 '위아래'의 연장선이란 느낌이 들었다. '위 아래'보다 펑키한 비트가 가미된 곡"이라고 말했다.

EXID는 지난해 '위아래' 활동을 접은 후 뒤늦게 인기를 얻으며 약 석달 만에 '강제컴백'을 하게 됐다. 그 배경엔 하나의 '직캠(팬이 직접 찍은 무대 영상)'이 인기를 끈 것도 한 몫 했다.

EXID의 새 앨범은 13일 정오에 발매된다. 엑소·f(x)·박진영·박효신 등 쟁쟁한 가수들과 경쟁하게 됐다. 하니는 "그분들과 함께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더 열심히 해야한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다른 가수가 아닌 바로 '위아래'"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지민기자 langkmee

요염한 고양이들의 화려한 군무

musical review /김효진기자 [illegible]

■ 캣츠

뮤지컬 '캣츠' 젤리클의 선소고양이, 올드 듀터러노미가 회상실을 오고 가는 관객들을 지켜본다. 1부와 2부 공연은 객석 곳곳을 누비는 고양이들의 요염한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인터미션 20분 마저도 고양이로 채워지는 특한 공연이다.

각양각색 고양이들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고양이들의 축제'인 젤리클볼에 모인다. 이들은 인간 세상을 반영한 다양한 성격, 직업, 독특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작품은 고양이들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20곡 이상의 넘버가 이들의 묘(猫)생을 풍부하게 풀어낸다.

무대 연출과 소품이 익살스럽다. 신발, 식칼 등 인간들이 사용

인터미션까지 꽉찬 구성
노래 '메모리' 감동 절정

하는 물건이 거대하게 전시됐다. 고양이들의 주 무대는 쓰레기장이다. 벽면과 객석까지 활용한 무대 구성은 관객을 고양이 축제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캣츠'는 범위 예술 뮤지컬의 최고라 할 만하다. 28마리 고양이들의 춤 실력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유연하고 섹시한 군무가 일품이다.

그러나 뛰어난 음악을 기대하고 간 관객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다. 대표 곡인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를 제외하곤 멜로디 위주의 음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자벨라는 한때는 매혹적이었지만 추한 모습으로 늙어버린 고양이다. '메모리'는 그리자벨라가 잘 나가던 과거를 회상하며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 노래다. '메모리'의 매력은 그리자벨라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 극 초반 다른 젤리클 고양이들의 멸시를 받을 때는 기가 죽어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릴 뿐이다. 그리자벨라가 젤리클 고양이들의 인정을 받고 함께 어우러질 때 기량이 폭발한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캣츠' 오리지널은 5월 10일까지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한고은 "호러퀸 수식어 수줍고 벅차"

'검은손' 첫 스크린 주연

배우 한고은(사진)이 공포영화 '검은손'(감독 박재식)으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박재식 감독, 배우 김성수와 함께 참석한 한고은은 "첫 주연, 그리고 호러퀸이라는 말은 너무 수줍고 벅찬 수식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화에 대한 로망이 컸다.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던 무렵 시나리오를 보게 됐다"며 "허구성이 있는 공포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은손'은 의문의 사고로 손목 접합수술을 하게 된 유경(한고은)과 그녀의 연인이자 수술 집도의인 정우(김성수)에게 일어나는 기괴한 사건을 그린 영화다.

한고은은 "공포영화를 무서워서 잘 못 본다. 하지만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였고 의학드라마도 잘 보는 편이라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16일 개봉. /장병호기자

혁명은 숲에서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솔직하고 독특한 문화이야기 '性'

동거 드라마 '더러버'·가상연애 '나홀로 연애중'·섹시한 중년 '쿠거'

성(性)과 연애를 솔직하고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드라마, 뮤지컬, 예능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엠넷 드라마 '더러버'는 네 커플의 리얼 동거 이야기를 담아 냈다. 30대 커플 오정세·류현경, 띠동갑 연상연하 커플 정준영-최여진, 동거 초보 박종환·하은설, 남남 룸메이트 타쿠야·이재준이 주인공이다. 특히 음식 취향 분리수거 같은 사소한 갈등부터 성 생활, 야한 동영상 등 19금 코드까지 다양하게 다룬다. 김태은PD는 "현실에서는 말하다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말을 버벅거리기도 한다"며 "실재감을 살리기 위해 배우들에게 웃음이 터져도 컷 사인을 할 때까지 끝까지 연기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연출 포인트를 설명했다.

뮤지컬 '쿠거'는 한국판 '섹스 앤 더 시티'로 불린다. 쿠거는 먹이를 찾으며 어슬렁거리는 쿠거(고양이과 동물)의 습성을 빗대 밤늦게까지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중년 여성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작품은 중년 여자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렸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세 여자들이 쿠거 커뮤니티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7월 26일까지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JTBC '나홀로 연애중'은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 받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화면 속 여성 혹은 남성과의 가상 데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본다. 특히 11일 방송에선 엑소 찬열과 여성 출연진의 썸이 화제가 됐다. 찬열은 대학교 선배로 등장했고 상대 여성은 스무 살 신입생이었다. 모태 솔로인 도희는 이날 "이 방송 정말 좋다. 잠들어있던 연애 세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 관계자는 "혼자 생활하는 독신을 위한 음식점이 생기고 있는 요즘, 멋진 이성과의 연애로 외로움을 달래 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보미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뮤지컬 '쿠거' /박해미기운데

JTBC 예능프로그램 '나홀로 연애중' 찬열

TV 하이라이드

엑소·레드벨벳, 시청자 고민 해결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대세 그룹 엑소의 백현·찬열 세훈과 레드벨벳의 조이·예리가 출연한다. 선강 정보에 빠진 엄마 때문에 고민인 20대 여성,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아 고민하는 30대 남성, 말 없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15년차 주부의 사연이 공개된다. 3승에 도전하는 '잠만을 자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너무한 당신'과 경쟁한다.

/김민서 기자 yur@

◆ MBC '다큐스페셜 – 거리의 피아노'

오후 11시15분

피아노가 세상의 거리 곳곳을 찾아가는 로드무비의 주인공이다. 총 제작 기간 1년, 전국 50여 개에 달하는 로케이션으로 한 대의 피아노가 그리는 천 개의 음악·천 개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본다.

◆ SBS '생활의 달인'

오후 8시55분

일본 칼의 달인과 메밀국수의 달인 등이 방송된다. 60년 칼 연마 내공으로 '느림보'으로도 자신의 칼을 맞추는 투지이 후사토시 달인의 60년 외길 인생이 공개된다. 이인례 달인의 살아 있는 면과 육수에 담긴 눈물 어린 정성을 만난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같은 듯 다른 두 남녀 강균성과 강예원의 냉장고를 의뢰한다. 혼전순결을 선언한 강균성의 냉장고에는 남자에게 좋은 재료가 한가득이고, 이것을 가지고 김풍과 미카엘이 그의 원기 회복을 위한 '남자에게 좋은 요리' 대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illegible] 시리즈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illegible]	[illegible]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드라마 그대가 꽃	55 오늘부터 사랑해 (8회)	15 [illegible] (12회) 00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48회)	[illegible]	[illegible]
20시	25 [illegible] 내 사랑 (94회)	30 [illegible] 55 [illegible]	55 압구정 백야 (125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0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illegible]
22시	00 가요무대	00 블러드 (17회)	00 화정 (1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45 달라졌어요	00 [illegible]
23시	3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illegible]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illegible]	15 MBC 뉴스 24 35 [illegible] 5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illegible]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illegible] (재)	0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3회) (재)	10 오늘 뭐 먹지? (31회) 30 [illegible]			◆ 프리미어리그 [illegible] ◆ 프리메라리가 [illegible]
19시	55 JTBC 뉴스룸	40 [illegible]	[illegible] 55 오늘 뭐 먹지? (52회)	00 [illegible]	20 엑스맨 2	
20시	50 JTBC 뉴스룸	40 [illegible] (13회)	25 오늘 뭐 먹지? (52회)	00 [illegible]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2회)	40 SNL 코리아 시즌6 (5회) (재)	00 [illegible] (2회)	00 코스모스 (3회)		
22시			00 [illegible] (5회)	00 [illegible] 50 브레인 게임 4 (4회)	00 [illegible]	
23시	00 비정상회담 (41회)	00 삼시세끼 2 (3회)	10 오늘 뭐 먹지? (53회) 50 [illegible] (4회)	00 [illegible]		
24시	30 [illegible]	20 [illegible] (재)	00 [illegible] 20 [illegible] (12회)	00 [illegible]	10 [illegible]	

'코리안 더비' 손흥민·구자철 '장군멍군'

레버쿠젠-마인츠 맞대결… 손 선제골 넣자 구 2골 화답

11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코리안 더비' 맞대결을 펼친 레버쿠젠 손흥민과 마인츠 구자철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과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가 맞대결을 펼쳐 코리안 향연을 펼쳤다.

손흥민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8라운드 마인츠05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려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정규리그 11호 득점을 올린 손흥민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을 더해 총 17골을 기록했다.

1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은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기록한 역대 분데스리가 한국인 한 시즌 역대 최다 골 기록(19골)에 2골 차로 다가섰다.

손흥민의 골에 이어 레버쿠젠은 후반 14분 슈테판 키슬링, 후반 28분 찰하놀루의 연속 득점으로 3-0까지 달아나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마인츠에는 구자철이 있었다. 구자철은 후반 33분 오카자키 신지가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만회 골을 쌓아냈다. 이어 후반 44분에 자이로 삼페리오가 얻어낸 페널티킥에서 다시 키커로 등장해 골을 넣었다. 이날 두 골을 넣은 구자철은 리그 4호 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는 결국 3-2 레버쿠젠의 승리로 끝났다. 레버쿠젠은 최근 6연승, 7경기 연속 무패(6승1무)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4승9무5패, 리그 4위 자리를 지켰다. 마인츠는 6승13무9패로 12위에 머물렀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구자철에게 평점 7.6점을 줘 마인츠 팀내 최고 평점을 부여했다. 구자철과 함께 이날 경기에서 90분을 소화한 박주호는 6.96점의 평점을 받아 팀내 5위에 올랐다. 레버쿠젠의 선제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7.14점을 받았다.

반면 독일 신문 빌트는 손흥민에게 팀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2점을 매겼다. 손흥민의 선제골을 돕고 쐐기골까지 꽂은 찰하놀루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1점을 받았다. '코리안 듀오' 구자철과 박주호는 그리 높지 않은 평점 4점을 받았다. 빌트는 1부터 5 사이 평점을 매겨 낮을수록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뜻이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와 파더보른의 경기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홍정호(26)가 전·후반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같은 팀의 지동원(24)은 교체 선수 명단에는 들었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기에서는 파더보른이 2-1로 이겼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호날두 38호·메시 34호 나란히 득점포

레알 마드리드, 바르샤 승점 2점차 추격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더 뜨거운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경기장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세비야와 2-2로 비겼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전반 14분과 31분 연속골을 넣으며 낙승을 예상했던 바르셀로나는 전반 38분과 후반 39분 실점하며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75점을 기록, 여전히 정규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전반 21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에 이어 치차리토와 헤세 로드리게스가 추가골을 뽑아 에이바르를 3-0으로 완파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73점으로 바르셀로나를 2점 차로 추격했다. 두 팀은 남은 정규리그 7라운드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을 펼치게 됐다.

특히 라이벌인 호날두와 메시도 이날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해 득점 경쟁을 이어갔다. 호날두는 시즌 38호골로 득점 선두를 지켰고 메시는 34호골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호날두(위)와 메시

강정호 선발 데뷔전 무안타 '침묵'

추신수 '등 통증' 결장

메이저리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 사진)가 아쉬움 속에 선발 데뷔전을 마쳤다.

강정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원정경기에 8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첫 두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마지막 타석에서 조구를 잡아당겼지만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수비에서는 세 차례 굴러온 땅볼을 무난하게 1루로 뿌려 깔끔한 송구를 선보였다.

피츠버그는 밀워키 선발 지미 넬슨을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당하고 2안타에 그치는 빈타에 허덕이며 0-6으로 완패했다.

경기 후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트리뷴-리뷰는 "강정호가 가진 힘이다 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컨택트 능력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그는 마이너리그 더블A 수준의 파워를 가는 한국에서 지난해 117경기에 나와 삼진을 106차례 당했다"고 지적했다.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등 통증으로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 결장했다. 텍사스는 선발 요바니 가야르도가 5⅔이닝 8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6-2로 승리했다. 이로써 전날 휴스턴에 1-5 패배를 설욕한 텍사스는 시즌 3승3패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강행군 김효주 결국 4R서 기권

롯데마트女오픈 김보경 우승컵

벙커샷 하는 김효주

'슈퍼루키' 김효주(20·롯데)가 오랜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출전한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기권했다.

김효주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제주 골프장(파72·6187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끝에 경기를 중도에 포기했다. 공동 21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9번홀까지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 버디 1개를 적어내 1타를 잃었다.

김효주는 KLPGA 사무국에 제출한 사유서에 "체력 저하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경기 진행 불가능"이라고 써냈다. 이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났다.

2012년 10월 프로로 전향한 김효주가 대회에서 기권한 것은 허리 통증으로 경기를 포기한 2013년 6월 에쓰오일 챔피언스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해 두 번째다.

우승컵은 김보경(29·요진건설)에게 돌아갔다. 김보경은 이날 악천후 속에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김해림·이정은을 3타차로 따돌렸다.

/김민준기자

스피스, 마스터스 사흘째 선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신예 조던 스피스(22·미국)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사흘 연속 단독 선두를 달렸다.

스피스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79회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스피스는 2위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4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나뉘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3				2		
	9			1			5	
			2			7	1	
			5			3		4
			8		4			
5		2			1			
	6	4			2			
	8			7			6	
		9				1		

	2		3		6	4		
				2				7
							1	3
8		9			5			
		6		8		5		
			4			9		8
5	9							
2				1				
		7	9		8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현사 스도쿠 프리미엄
(재미 고든 프렌크 듣고 지음)

갤럭시S6, 물량 남았다는데 품귀라니…

기자 수첩

양성윤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가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판매 수치가 궁금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전 세계에 공개됐을 때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도 무차별적 찬사를 보냈다. 출시와 동시에 스마트폰 시장 판도를 뒤흔들 분위기였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역시 "갤럭시S6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월 24일 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갤럭시S6 엣지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카메라 화질이 참 좋다"며 간접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정도로 마케팅에 집중했다.

출시 당일(10일) 국내 언론사들은 갤럭시S6 엣지 품귀현상이라는 제목과 유사한 느낌의 글을 쏟아냈다.

또 당초 5000만대 안팎을 예상하던 증권가들은 출시 당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7000만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일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은 "갤럭시S6 엣지가 반응이 좋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공급 애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신 사장의 바람(?) 처럼 갤럭시S6 엣지의 물량 부족 현상은 현장서는 느낄 수가 없다.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짜로 풀린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예외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만큼은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11~12일) 서울 영등포역과 왕십리역의 대리점 몇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갤럭시S6 엣지 골드 32GB를 제외하고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왕십리역 인근 대리점 관계자는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첫날 지 매장은 10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고 주변 대리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다"며 "출시 첫 주말이라 물량 부족사태를 걱정했지만 아직 6대가 남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최근 '갤럭시S6·S6엣지 품귀현상'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품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품귀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라고 반문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궁합보다 난관 극복할 의지가 중요

(서울/02)15 여자 81년 1월 7일 유시 15시 30분
남자 80년 5월 14일 유시

Q 우연히 출근길 메트로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을 생각도 못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신 제목처럼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조금은 부유하고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20세 초기에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교제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남자친구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밑에 동생들이 있으며 집안도 넉넉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흠결은 무시 못 한다며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허락해도 결혼은 반대라는 선택을 보이셨니다. 궁합이 어떤가요?

A 결혼 님사자가 잘 궁합이나 속궁합이 잘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결혼생활에 원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 주변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와 예절과 화목을 엮어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두 가족의 조화라고 봐야 합니다. 결혼이 가져오는 전정과 시댁 가족관계의 마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의 큰 고민과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독립적이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지키면서도 그들과 독립했다는 확실한 생리 경계를 지니는 데에 반해 여자들은 떠나온 집안에 대한 끊임없는 회상과 자기 자신이 가족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편입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친정 가족 간의 탈없는 줄다리기에 매우 예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남자가 두 가족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완충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이 잘 안되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므로 그로 인한 상처를 서로 입게 됩니다. 결혼 후 처가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환경적 차이를 어찌 견디고 극복 할 수 있을 것인지 시시때때로 남편과 비교하여 손감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에 자신이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 후 얼마간이 지나서 그동안 연애시절의 애정의 불꽃이 식어간 후에 찾아올 불화를 견딜 수 있는 지를 궁합에 앞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직 나이가 있으니 여러 결정보다는 시간을 갖고 지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인제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3일 (음 2월 25일) 사주스타 www.sajusta.com 060-700-4400

쥐 48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60년생 주색을 조심해 주십시오. 72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84년생 마음가 봄두근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쉬세요습니다.

소 49년생 대단한 미나이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61년생 내 자신을 추스리세요. 73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5년생 조금만 더 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토끼 51년생 제는 크고 이럴고 괜은 생긴합니다. 63년생 친척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용 52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4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타협하세요. 76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88년생 파트너와 결의 있겠습니다.

뱀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관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뒤를 살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착하면 성공합니다.

말 54년생 비노기 계통의 질환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찾기고 힘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층제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양 55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67년생 일에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79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91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승리에 도취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넘어갑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하루 근심 없이 지나게 됩니다.

닭 57년생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비의 활력이나 취미 쓴 아직 이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각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않습니다.

개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편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뒤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돼지 59년생 주위의 참동하세요. 71년생 무작정 날뛴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법. 83년생 사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

김기춘 전 실장, 뇌물죄 적용할 수 있나

법조계 "혐의적용하려면 성 전 회장의 고발 진위부터 가려야"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김기춘(사진)·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는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결국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년 9월26일 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뇌물을 수수했다면 당시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가 되는지 봐야 한다"며 "현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2017년에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허 전 실장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들 외에도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홍준표 경남도지사·홍문종 국회의원 등의 경우 ○○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검찰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발언의 진위를 검찰이 가리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발언의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에 문무일 지검장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이 맡는다.

또한 구본선(47·23기) 대구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수사팀으로 투입됐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 안팎이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한 금품 액수, 날짜 등을 적은 메모를 남겨 파문이 일었다.

/이홍원기자 hono@

감염병을 막기 위해 12일 오후 대구 북구 EXCO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검역당국 관계자들이 적외선 발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참석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법 "채용공고와 다른업무… 부당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광태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최현민기자 hmlock@

대학생 MT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잇단 사고에 대책 고심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선준기자